

# 군산시 어린이 행복증진 기여 앞장

### 군산대 어린이행복연구소, 국내 최초 놀이터활동가 양성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행복연구소(소장 교직과 안진경 교수)가 국내 최초로 놀이터활동가를 양성하며 주목받고 있다.

군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놀이터활동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놀이터활동가 50여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군산시 어린이 행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군산시청, 세

이브칠드런과 어린이 행복놀이터 조성 및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어린이의 놀 권리회복과 어린이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 놀이터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올해 초 진행하였다.

7명의 전문 교수진이 진행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50여명의 전문 놀이터 활동가가 양성되었다. 놀이터 활동가 양성과정은 놀이와 아동발달,

놀이지도, 놀이의 이해, 놀이환경, 안전교육 등의 이론과 상호작용, 놀이의 실제, 모의 수업 및 평가 등의 실제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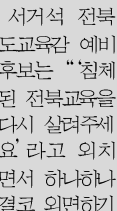
놀이터활동가 양성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놀이터활동가 양성과정이 군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군산의 아이들에게 다른 시도 아이들보다 더 행복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뿌듯하고, 군산

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진경 교수는 "군산시 어린이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과 가족관계 향상 및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부모역량강화 교육, 그림책 전문가 양성과정, 놀이터활동가 자격과정, 부모와 교사를 위한 코칭프로그램과 다양한 워크숍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 서거석 도교육감 예비후보 "아이들 있는 곳 어디든 달려가겠다"



서거석 전북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재 전북교육을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서 하나하나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서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불통과 오만의 구제에 연장이나, 소통과 겸손,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으로 교체의 대결이며 '지난 8년간 전북교육을 이끌었던 리더십을 이젠 교체가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서 후보는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이들의 눈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며 "교직원 모두 자긍심을 갖는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지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 후보는 "익산은 전북의 심장이며 호남 최고의 교통요충지이자, 교육문화의 중심지이고 백제와 미천의 위대한 숨결이 살아 숨쉬고 아시아의 식품수도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전 전북대 총장 시절 재임시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과 수의대 익산이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및 익산캠퍼스에 친환경 농생명대 신설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해서 익산을 명실상부한 식품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심을 표명했다.

/익산=정왕일 기자

## 원광대,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박사 60명 · 석사 211명 · 학사 2761명 등 총 3032명 학위 수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박사 60명, 석사 211명, 학사 2,761명 등 총 3,032명에게 학위가 수여된 이날 졸업식에서는 원광교과와 고해민 경영학부 김윤경, 한양학과 이다슬 학생이 이사장을 받고 평균 평점 4.5 만점에 4.45점을 기록한 전자융합공학과 장세류 학생이 학업 최우등으로 총장상을 받았으며, 간호학과 김서영, 컴퓨터공학과 김승진, 식품영양학과 송인수, 불행인재학과 김민희, 소방행정학과 전명권 학생이 각각 삼합신사 및 덕성여당상으로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6년도 부총학생회장 한익화과 임형주 학생을 비롯해 사회체육과 김택중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상원, 소방행정학과 김규

환, 컴퓨터공학과 최영진 학생이 각각 총장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역사교육과 정인지 학생과 원예산업학과 최다연 학생이 각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과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으며, 한철, 사회봉사 심화활동, 덕성훈원 심화과정, 선·효행, 나눔실천 등 도덕적 실천덕목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도의실천인증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16명에게는 졸업장과 함께 '도의실천인증서'가 전달됐다.

김도중 총장은 훈사를 통해 "인류는 지금 3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기도 전에 4차 산업혁명이 접어들었다"며, "지적경쟁·도의실천의 바탕에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길러진 지혜로운 인재라는 자부심으로 값진 경험과 깨달음을 사회에서 실천해 보고 기회를 찾아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명국 이사장은 차사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

으로 인간 삶의 환경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크게 변화되고,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그야말로 '물길개벽'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한다"며, "도전하고 이겨내야 할 여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도전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된다는 점에서 용기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서는 자랑스러운 등문으로 (주)길건축사사무소 이길환(1990년 건축공학과 졸업) 대표가 초청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있는 원광대를 졸업했지만, 저런 사람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열사람이 스무 사람과 바꾸고 싶지 않다"고 격려사를 시작한 이길환 등문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늘 갈망하면서 움직이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왕일 기자

## 군산시 '조상망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 내달 6일 스타트

군산시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기 위한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를 내달 6일 욱구읍을 시작으로 실시한다.

2018년 1분기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 일정은 ▲3월 6일 욱구읍을 시작으로 ▲8일 옥산면 ▲13일 회현면 ▲15일 임피면 ▲20일 서수면 ▲22일 대야면 ▲27일 롯데마트 ▲29일 개정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분기별로 진행될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는 향후 6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다중집합장소(이마트, 롯데마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군산시-서천군, 새로운 문화 교류활동 펼쳐나간다

### '금강역사영화제' 공동개최 협약 체결

군산시는 20일 서천군(군수 노박래)과 '제1회 금강역사영화제'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가 새로운 문화 교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는 양 도시가 영화제 관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시군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는 '제1회 금강역사영화제'를 6월 15일~17일 3일간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역사영화제'라는 화합된 공동 명칭 사용 ▲매년 양 시군 공동개최 등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영화를 매개체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색 있는 영화제를 공동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문

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양 시군의 지역 영화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역사영화제'는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인접한 양 도시가 지닌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2개 지자체가 협업체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지역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 영화제와는 차별화된 테마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오는 6월 15일~17일에 개최될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 영화배우와 감독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영화 평론가가 참여하는 역사영화 세미나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 대중적으로 듣는 디제이 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소방서, 심폐소생술 플래시몹 피날레 진행

익산소방서는 20일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익산의용소방대원 40여명이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플래시몹은 전북 최초로 익산소방서에서 하트세이버,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심폐소생술을 흥미롭

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심폐소생술 플래시몹은 율동과 퍼포먼스를 기미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에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심폐소생술을 선보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 발견시 초기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난 4개월 동안 원광대학교, 익산역, 익산롯데마트, 시외버스터미널에 이어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소재질 방호구조과장은 그간 행사에 수고해 주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보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일 기자

## 익산시,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일제정비

익산시는 제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인도나 차도에 무분별하게 진열된 상품과 상품진열대, 천막과 파라솔 등 불법으로 적치된 물건들이며, 임간판이나 배너 등 불법 광고물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일제 정비는 그동안 교통혼잡과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집중 제기되었던 북부시장과 평화동 공구상 밀집지역 등 특정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익산=정왕일 기자

어린이 행복증진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 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익산 Hub GUNSAN CITY